



전주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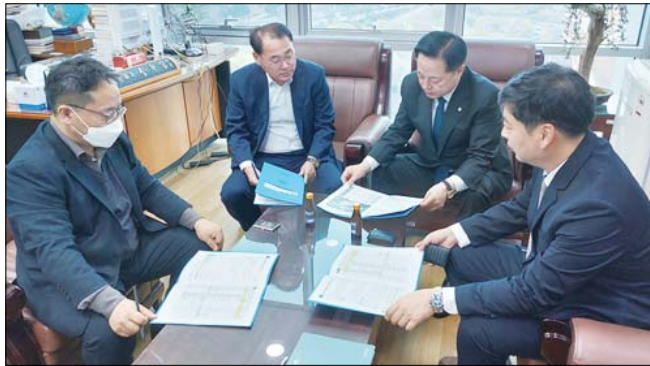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국회 상임위·예결위 예산심사 막바지 단계 대비 정부예산 '키맨' 찾아 설득

김중훈 경제부지사·김광수 정무수석 등 국회 찾아 지역 현안 반영 요청

국회 예산심사가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내년 정부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예산심사 주요 인사 설득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15일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의 예결소위 위원과 기재부 주요 심의관 대상 활동과 17일 김광영 도지사의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에 이어 21일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와 김광수 정무수석이 동시에 국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비싼 걸음을 이어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찾은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지역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산항 활성화와 물류비용 절감과 물류 분산을 위해 시급한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개설비(18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이날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민병덕 의원과 김두관 의원을 면담하고 새만금·사회간접자본(SOC)분야와 문화·체육분야 핵심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민병덕 의원의 면담에서는 태권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3억원)를 비롯하여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

단계 조성,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단 건립(28억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김두관 의원에게는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설계비 50억원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200억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건설(700억원) 사업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28일 도내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가예산 막바지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21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6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광영 도지사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도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권기서 3면>

전북도 기업유치 광고, 전국에 On Air

'이제 또 하나의 전성기'

광고 모델로 전북서 성공스토리 쓴 이동국 기용
전북만의 차별화된 스토리 전하는데 주안점 뒀

전북도가 야심 차게 준비한 기업유치 광고가 오는 21일부터 전국에 방송된다.



기업유치 광고에 등장하는 이동국 엔딩컷. (사진=전북도청 제공)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대 핵심 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해 제작한 TV 광고로 기존의 기업유치 광고와는 전혀 다른 형식과 내용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K리그 레전드인 이동국 선수가 광고 모델로 기용됐다.

광고에서 이동국은 "전북현에서 전성기를 맞으며 K리그 성공 스토리를 완성했다"며 "이제 또 하나의 전성기가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30초 분량의 광고는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구축 중인 전라북도의 노력과 여건을 소개하고 있다.

농생명산업 수도와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인들이 전라북도에서 또 다른 성공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확신도 함께 전하고 있다

광고의 핵심 메시지는 전라북도에서 성공할 기업에 대한 한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겠다는 민선 8기 전북도정의 목표이자 다짐이다.

김희경 소용기획과장은 "전북도 기업유치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정성을 담은 모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광고를 제작했다"며 "전라북도에서 성공한 모델의 이미지가 앞으로 펼쳐질 전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라도 천년사 봉정식

내달 21일로 연기

"내실있는 풍성한 행사 추진 위해 불가피한 결정 내려"

전북도는 당초 25일에 추진하기로한 전라도 천년사 봉정식을 12월 21일로 순연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 천년사 봉정식은 전북·전남·광주·충남권 3광역 지자체가 그간 5년간 공동으로 준비한 사업으로 보다 내실있고 풍성한 행사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당초 봉정식 개최가 11월 25일로 확정된 것은 올해 6월말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게 됨에 따라 본래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함께 모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면서 봉정식 연기가 결정됐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17년째 방치' 남원 효산콘도, 새 주인 찾다

광주지역 건설업 투자 법인에게 매각... 낙찰금 27억3800만원

남원시는 17년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효산콘도가 지난달 31일부터 3회 공매를 진행한 결과 새 주인을 찾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이 결정된 법인은 광주 지역 건설업에 투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남원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도심 미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효산콘도 활성화를 위해 30여 차례 공매를 진행해왔으나 매번 응찰자가 없어 지금까지 17

년 동안 폐건물로 방치되어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인수위 단계부터 효산콘도 활성화를 민선8기 주요현안 사업으로 선정하고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김광영 전 부지사(전)를 만나 수차례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듣고 관련부서에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주문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매는 유찰로 공매 중지된 효산콘도의 구매 장점 부각과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재공매를 추진했으며, 지난달 31일 첫 공매가 34억1,760만원으로 시작해 지난 17일 3회차 개찰 결과 낙찰가 27억3,800만원에 21일 최종 매각이 결정됐다.

현재 낙찰업체는 낙찰금액의 10%인 계약금 2억7,380만원을 납부하였고 내년 1월 2일까지 잔금을 납부 완료하면 되지만, 지난 2015년, 2016년 두 차례 매각이 결정되었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이 취소된 사례가 있어, 남원시는 투자자가 잔금 납부를 완료할 경우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축! 전주매일 캠페인